

금호폴리켄, 13년 무재해 이어간다!

안전보건공단, 여수 제2공장 현장방문 ... 증설공사 비롯 안전관리 점검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6월18일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여수지역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을 방문했다.

현장방문은 화학공장의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로 인한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 관계자 등은 여수 산업단지 소재 금호폴리켄 여수 제2공장에서 화학공장 안전관리 실태와 협력기업에 대한 안전보건지원 사항을 파악했다.

금호폴리켄 여수 제2공장은 현재까지 약 13년 동안 무재해 기록을 달성하고 있으며 에틸렌(Ethylene), 프로필렌(Propylene), 헥산(Hexane)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합성고무 전문사업장이다.

여수 제2공장은 직원 50명과 협력기업 4사 직원 60명을 합쳐 모두 110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협력기업이 참여하는 환경안전부문 회의를 실시해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과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또 매주 최고경영자 층이 직원들의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직접 관리하고 안전팀이 현장을 확인·감독하는 안전작업허가 제도와 잠재위험요소 발굴 주기적 개선 등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이어가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은 금호폴리켄 여수 제2공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공장장, 환경안전팀장, 4개 상주협력기업 대표자와 신규 증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장 등과 안전수칙준수 활동 강화를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6/18>